

2017년 지방직 7급 한국사 D책형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은 한국 민족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정신을 중시하고 이를 고취시켜 독립을 이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은 사회구성체 발전 단계론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에게서 구했으며, 우리 역사를 유물사관의 방법론에 맞추려고 하였다. 백남운, 이청원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은 순수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지향하며 문헌 고증을 중시하였다. 이병도, 손진태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 | ㉠ | ㉡ | ㉢ |
|---|---------|--------|--------|
| ① | 민족주의 사학 | 사회경제사학 | 실증사학 |
| ② | 실증사학 | 민족주의사학 | 사회경제사학 |
| ③ | 민족주의사학 | 실증사학 | 사회경제사학 |
| ④ | 사회경제사학 | 실증사학 | 민족주의사학 |

1. 정답 : ①

㉠ 19세기 말 신채호, 박은식 등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 민족주의 사학은 192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근대 역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제의 역사 왜곡에 대항하여 한국사의 기원을 밝히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 사회 경제 사학은 1930년대 이후 일제 식민 사학에 대항하여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주된 방법론으로 하여 한국사를 체계화한 역사학이다.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경제 사학에 입각한 연구들이 등장했고, 대표적인 학자는 백남운, 이청원 등이 있으며 식민 사학에서 조선의 역사가 정체되었고(정체성론), 스스로 주체적인 역량으로 역사를 전개시키지 못하고 주변 외세의 힘에 의해서만 좌우되었다는(타율성론)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 실증주의 사학은 사료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철저히 배제하고 치밀한 문헌 고증을 통해 한국사를 복원하는 데 주력한 역사학으로, 이병도, 손진태 등이 중심이 되어 1934년 진단학회(震壇學會) 결성을 주도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하면서 자신들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학풍을 다져나갔다.

2. 몽골 침입 시기에 발생한 사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긴다.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였다.
- ②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 ③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④ 명주와 삼베를 짜는 방직기술이 발달하였다.

4. 정답 : ②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인 5월과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은 ‘삼한’에 대한 내용이다.

② 삼한은 정치적 지배자인 신지·읍차 등이 있었고,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천군이 존재한 제정 분리 사회였다.

①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부여에는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고, 친정 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③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풍습으로 어린 신부가 신방의 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하는 일종의 신부 매매혼이다. ④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동예는 누에를 이용하여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5. 우리나라의 시기별 교육 변화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0년대 -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 ② 1970년대 -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연합고사로 바뀌었다.
- ③ 1980년대 - 학교 교육과 별개로 사교육인 과외가 활성화되었다.
- ④ 1990년대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5. 정답 : ③

③ 1980년 대 전두환 정권 때는 사교육 열풍을 막기 위해 과외 금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①, ② 박정희 정권 때인 1968년 7월 중학교 입시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무시험 추천제는 1969년 2월 5일 서울에서부터 시행되어 197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73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연합고사로 대체되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연합고사를 통과한 학생들은 추천을 통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었다. ④ 김영삼 정부 때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1994학년도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8월 첫 번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다.

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금께서 말하기를, “칠사(七事)라는 것은 무엇인가?”하니, 변징원이 대답하기를 “농상(농사와 양잠)을 성하게 하는 일, (㉠)을/를 일으키는 일,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간활(간사하고 교활함)을 없애는 일, 군정(軍政)을 닦는 일, 호구를 늘리는 일,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이 바로 칠사입니다.”라고 하였다.

- 『성종실록』 -

- ① 유학에 힘쓰게 한다.
- ② 도적이 없게 한다.
- ③ 호적을 정리하고, 군역과 요역을 감독한다.
- ④ 중앙의 명령을 전달한다.

6. 정답 : ①

① 제시된 사료는 성종 때 정비된 ‘수령 7사’에 대한 내용이다. 성종 14년(1483)에 수령 7사를 재정비하여 『경국대전』 이전 고과조에 농사와 양잠의 흥성[농상성(農桑盛)], 호구의 증가[호구증(戶口增)], 학교 교육의 진흥[학교흥(學校興)], 군정의 바른 처리[군정수(軍政修)], 부역의 균등한 부과[부역균(賦役均)], 송사의 간명한 처리[사송간(詞訟簡)], 간사하고 교활한 풍속을 없애는 일[간활식(奸猾息)] 등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은 교육의 진흥과 관련된 유학 장려가 옳은 내용이다.

7. 밑줄 친 ‘입법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發)할 것.
-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채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
- 4. ...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시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 ... (후략)

- ①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 ② 관선과 민선 두 종류의 의원이 있었다.
- ③ 초대의장으로 여운형이 선임되었다.
- ④ 「입법의원 의원선거법」을 제정하였다.

7.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1946년 10월에 발표된 ‘좌우 합작 7원칙’으로, 밑줄 친 ‘입법 기구’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다.

③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인물은 김규식이다.

① 1946년 12월에 창설된 남조선과도 입법 의원은 이후 입법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 결과 상당수 친일파가 입법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군정장관 러치(A. L. Lerche)가 창설

한 입법의원은 1947년 3월 13일 친일파의 의원 자격 및 향후 선거에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모태가 되는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모리 간상배에 관한 특별조례」의 초안을 상정하였다. ②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은 개원 당시 선거로 뽑힌 이승만 등의 민선의원과,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이 임명한 좌우합작파의 관선의원으로 이루어졌다. ④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은 1948년 3월 해체 전까지 50여 개의 법령을 심의 제정하였는데,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자 이에 따라 ‘입법의원 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였다.

8. 세종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ㄴ. 삼포에 대한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ㄷ.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두만강 유역에 6진을 개척하였다.
 ㄹ. 압록강 방면에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최윤덕을 파견하여 그들을 토벌하였다.
 ㄹ. 쓰시마 도주(島主)와 계해약조를 맺어 연간 50척의 세전선을 파견할 수 있게 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ㄹ
 ④ ㄴ, ㄷ, ㄹ, ㄹ

8. 정답 : ③

ㄱ.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에 대한 토벌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이루어졌다. 1419년 이종무는, 병선 227척, 병사 1만 7000명을 이끌고 쓰시마 섬을 토벌하여 왜구의 근절을 약속받고 돌아왔다. ㄷ. ㄹ. 세종 때에는 압록강 방면에 최윤덕을 파견하고, 두만강 방면에 김종서를 파견하여 여진의 무리를 몰아내고 4군과 6진을 설치하였다. 이후 이곳은 조선의 영토가 되어 북쪽의 국경선으로 확정되었다. ㄹ. 세종 때의 대마도 정벌 이후 조선과 대마도의 통교가 단절되었는데, 이후 대마도주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조선은 3포를 개항(1426)하고, 1443년 대마도의 세전선을 50척으로 할 것과 세사미두를 200석으로 하는 계해약조를 체결하였다.

ㄴ. 부산포, 내이포, 염포 등 삼포(三浦)에서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이 대마도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삼포왜란은 중종 5년(1510) 때 일어났다.

9. 다음 자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대사헌 조준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 ... 금년에는 (토지를) 겸병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의 토지가 주(州)에 걸치고 군(郡)을 포괄하며, 산천을 경계로 삼을 정도입니다. 1무(畝)의 주인이 5, 6명이나 되고 1년에 조세를 받는 횡수가 8, 9차에 이릅니다. 위로는 어분전(御分田)부터 종실·공신·조정·문무관의 토지, 외역·진·역·원·관의 토지와 백성들이 여러 대 동안 심은 뽕나무와 지은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빼앗아 차지하니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닙니다.”

- ① 전시과를 공포하여 전제개혁을 단행하였다.
- ② 전제개혁으로 신진사대부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 ③ 이성계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는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다.
- ④ 과전 지급 지역은 경기도 한정되었고, 지급 대상은 전직, 현직 관리였다.

9.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조준의 전제 개혁안으로, 조준의 건의 이후 과전법이 제정(1389)되었다.

④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관직에 대한 대가로 경기도 지역에 한해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① 전시과가 처음 시행된 것은 고려 경종 때이다. ②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몰수하여 실시되었던 토지 개혁으로, 과전법 실시 결과 재정 확충과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③ 과전법은 충성도 기준이 아닌 관직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따라 분배한 것이다. 충성도에 따라 분급한 토지는 고려 태조 때의 역분전에 대한 내용이다.

10. ㉠ ~ ㉣에 들어갈 책의 이름이 옳은 것은?

- (㉠)에서는 『주례』에 나타난 주나라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 (㉡)는 수령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도적으로 변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백성을 기르는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일종의 수신교과서이다.
- (㉢)는 백성들이 억울한 벌을 받지 않도록 형법을 신중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은 책이다.

- | | ㉠ | ㉡ | ㉢ |
|---|------|------|------|
| ① | 경세유표 | 흙흙신서 | 목민심서 |
| ② | 흙흙신서 | 목민심서 | 경세유표 |
| ③ | 목민심서 | 경세유표 | 흙흙신서 |
| ④ | 경세유표 | 목민심서 | 흙흙신서 |

10. 정답 : ④

㉠ 『경세유표』는 정약용이 조선 후기의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고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해 『서경』과 『주례』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여 육전 체제에 따라 조선 사회의 개혁안을 저술한 책이다. ㉡ 『목민심서』는 목민관(牧民官), 곧 수령의 기본자세를 다룬 책으로, 당시 지배 계층을 통렬히 비판하고 수탈당하는 백성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표현하였으며 수령

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청렴과 절약, 검소, 애민 정신 등을 들고 있다. ㉔ 정약용은 백성들이 억울한 별을 받는 것은 사건을 다루는 관료 사대부들이 율문(律文)에 밝지 못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술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겨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흙흙신서』를 저술하였다.

11.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 ○ 다른 나라에 철도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 ○ 시급히 방곡령을 실시하고 구민법을 채용할 것 ○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꾀할 것 |
|---|

- ①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함을 강령으로 삼아 투쟁하였다.
- ② 1900년 전후 충청과 경기,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 ③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라는 뜻으로 『홍길동전』에서 이름을 따왔다.
- ④ 을사늑(조)약 이후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병운동에 참여하였다.

11.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활빈당의 활동 강령이라 할 수 있는 「대한사민논설(大韓士民論說) 13조목」(1900)이다.

- ①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함을 강령으로 삼았던 단체는 신진회이다.
- ② 1900년 전후 충청과 경기,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소백산맥 부근의 전라도 등지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서로 연합하기도 하였다. 또한, 활빈당은 평소에는 십여 명에서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때로는 군인으로 때로는 행상인으로 변장하고 다니며 활동하였다.
- ③ ‘활빈(活貧)’은 ‘가난한 사람을 살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소설 『홍길동전』에서 이름을 따왔다. 활빈당은 양반·부호가, 관가, 장시 등을 습격하였는데, 약탈한 재물을 빈민에게 분배함으로써 활동의 정당성을 홍보하였다.
- ④ 1905년 이후 활빈당의 일부 세력은 의병운동 대열에 흡수하여 을사의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2. 다음 (가), (나)에 나타난 신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p>(가) 속성은 김씨로 태종무열왕이 8대조이다. 할아버지인 주천의 골품은 진골이고 아버지는 범청으로 골품이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 득난(得難)이 되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 -</p> <p>(나) 최치원은 난랑비(鸞郎碑) 서문에서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일컬었다. 실로 이는 삼교(유·불·선)를 포함하고 중생을 교화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삼국사기』 -</p> |
|---|

- ① (가) - 개인의 사회 활동과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 ② (가) -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 ③ (나) - 진흥왕 때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④ (나) - 귀족들이 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였다.

12. 정답 : ④

제시된 자료 (가)는 최치원이 지은 「성주사낭해화상백월보광답비문」으로 진골 귀족 만능의 골품제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는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으로 신라의 대표적 화랑이었던 난랑을 위해 세운 비석이었다.

④ 화백 회의에 대한 서술이다. 화백회의는 상대등(의장)을 중심으로 한 대등(귀족)들로 구성되었으며, 만장일치제를 채택하여 귀족들의 단결을 꾀하였다.

① 골품은 신라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활동이나 정치 활동의 범위뿐 아니라 가옥의 규모와 장식품, 복색이나 수레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② 골품제는 관등 조직과 연관되어, 골품에 따라 승진의 상한선이 결정되었다. ③ 화랑도는 원시(씨족) 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비롯되었으며, 진흥왕 때(6세기) 국가 조직화되었다.

13.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ㄱ. 1919년 파리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
| 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형태를 갖추었으나, 국내와는 연결된 적이 없었다. |
| ㄷ.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 한성(서울) 등 세 곳의 임시 정부가 협력하여 구성하였다. |
| ㄹ.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주로 독립 운동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3. 정답 : ②

ㄱ.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파리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파견된 신한청년당 김규식을 외무총장 겸 대한민국 주 파리위원으로 임명하고 신임장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파리 강화 회의는 그 자체가 제1차 세계 대전 승전국들의 이권 도모를 위한 회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약소민족의 요청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ㄷ. 1919년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1919년 3월에 제일 먼저 연해주에서 대한 국민 의회가 출범하였고, 이어서 4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국내에서 한성 정부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조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로 연락이 자유롭지 못했던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곧바로 통합 운동을 전개하였고, 마침내 9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통합되었다. ㄹ.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여 국제 연맹에 제출함으로써 일제의 침략 현실을 폭로하고자 하였고, <독립신문>을 기관지로 간행하여 독립 의지를 선전하였다.

ㄴ. 대통령제에 입각한 민주 공화제를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 모금과 첩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임시 정부의 활동을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매우 중요하였고 이를 위해 임시 정부는 국내에 연통제(聯通制)와 교통국(交通局)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연통제와 교통국은 임시 정부의 자금 조달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임시 정부를 선전하는 데에도 큰 힘을 발휘하였다.

14.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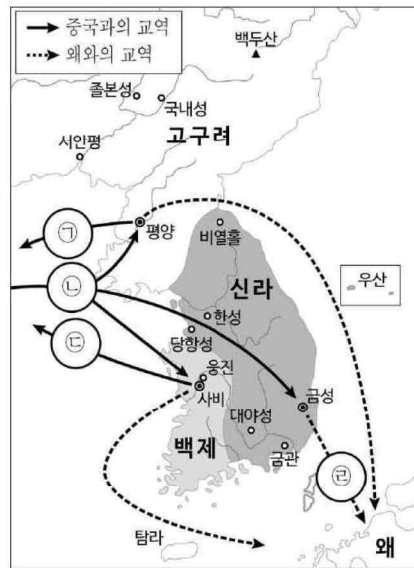
- 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독립 수공업자들이 나타났다.
- ② 『금양잡록』, 『농서집요』 등의 농서가 간행되었다.
- ③ 광산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④ 광작을 통해 부농이 될 수 있었다.

14. 정답 : ②

② 『금양잡록』은 1482년(성종 13)에 강희맹이 금양(경기도 시흥)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방의 농사법을 자신의 경험과 전문을 토대로 정리하여 편찬한 농서이다. 『농서집요』는 조선 전기 태종과 중종 때 같은 이름으로 두 차례 간행된 농서이다. 태종 때 간행된 『농서집요』는 고려 후기 들어온 『농상집요』에서 우리 농사에 필요한 부분, 특히 밭갈이와 벼·보리·밀 재배 기술을 집중 선택하여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그리고 중종 때에는 경상관찰사였던 이우가 기존의 농서에 새로운 관행농법을 추가한 『농서집요』를 간행하였다.

① 조선 후기에는 부세 및 소작료의 금납화, 인구의 자연 증가와 인구의 도시 유입과 관련하여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이 더욱 촉진되었고,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수공업자 가운데서도 독자적으로 종이, 화폐, 철물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③ 조선 후기에는 대상인인 물주가 광산 경영 전문가인 덕대에게 자본을 공급하면 덕대가 임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④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을 확대하여 벼와 보리의 이모작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이전보다 넓은 농토를 경작할 수 있게 된 광작 농업으로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 부농이 될 수 있었다.

15. 다음은 삼국의 주요 대외 교역 물품을 표시한 지도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ㄱ : 도자기, 비단, 서적
② ㄴ : 인삼, 직물류
③ ㄷ : 금, 은, 모피류
④ ㄹ : 곡물, 비단

15. 정답 : ④

④ 신라는 왜에 곡물과 비단 등을 수출하였다.

① 고구려는 중국에 금·은, 모피류 등을 수출하였다. ②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비단, 서적, 도자기 등을 수입하였다. ③ 백제는 중국에 인삼과 직물류 등을 수출하였다.

16.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안, 대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ㄴ. 중앙 관제로 당과 비슷한 3성 6부제를 시행하였다.
- ㄷ. 동해안을 따라 신라에 이르던 교통로를 '신라도'라 하였다.
- ㄹ. 무왕은 스스로 전륜성왕이라 자처하고, 일본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① $\neg$, $\sqsubset$
② $\sqcup$, $\sqsubset$
③ $\neg$, $\sqcup$, $\sqsubset$
④ $\neg$, $\sqcup$, $\sqsubset$, $\sqcap$

16. 정답 : ③

7. 발해에서는 천통, 인안, 대흥, 건흥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국왕권의 강대함,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대등함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ㄴ. 발해는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여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대표되는 3성 6부의 중앙 정치조직을 정비하였다. ㄷ. 발해와 신라 수도 경주를 잇는 교통로가 바로 신라도이다. 『고금군국지』에 따르면 신라 천정군(泉井郡)에서 책성부(柵城府)까지 이르는 동안 39개의 역(驛)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9세기를 전후한 무렵에는 신라도 가운데 동경용원부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교통로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육로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노선 등의 해로도 신라도로 활용되었다.

ㄹ. 무왕 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맞는 내용이지만, 스스로를 전륜성왕이라 자처한 국왕은 문왕이다. 문왕의 시호가 ‘대홍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이었는데 대홍과 보력은 문왕대의 연호였고, 금륜성법은 불교적 의미를 띤 것으로서 전륜성왕의 이념을 상징한다. 이로써 문왕은 정복군주로서 천하에 정법을 시행하는 이상적인 군주임을 자임한 것을 알 수 있다.

17. 조선 후기 신분 변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공이나 납속책 등을 통해 노비의 신분이 상승되고 공노비는 해방되었다.
- ② 서얼은 신분 상승 운동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 ③ 역관은 외래문화의 수용에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④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어들었다.

17. 정답 : ②

②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여 영·정조 때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다. 서얼은 수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상소하여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요구하였고, 1851년 신해허통 조치를 통해 서얼의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었다.

① 조선 후기에 노비는 군공과 납속 등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부단히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상민과 노비의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는 재정상 어려움을 주었고, 국방상으로도 지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노비를 해방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1801).

③ 중인 중에서도 역관들은 청과의 외교 업무에 종사하면서 서학을 비롯한 외래문화 수용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여, 성리학식 가지 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의 수립을 추구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는 납속·공명첩 등의 합법적 방법과 양반 신분 매입, 족보·홍패 위조 등의 불법적 방법을 통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양반의 수는 더욱 늘어났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18. 밑줄 친 ‘가라(가야)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라(가야라고도 한다)국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다함은 나이 15, 6세였음에도 중군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나, 여러 번 진심으로 청하고 뜻이 확고하였으므로 드디어 귀당 비장으로 삼았다. …… 그 나라 사람들이 뜻밖에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군이 승세를 타고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 『삼국사기』 -

- ① 시조는 수로왕이며 구지봉 전설이 있다.
- ② 나라가 망할 즈음 우륵이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들어갔다.
- ③ 낙동강 하류에 도읍하고 해상 교역을 중계하였다.
- ④ 국주(國主) 김구해가 항복하자 신라왕이 본국을 식읍으로 주었다.

18.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가라(가야)국’은 대가야이다.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 의해 562년 멸망하였다.

② 우륵은 대가야의 음악가로서 가야 음악 12곡을 지었는데, 대가야가 멸망하기 직전인 신라 진흥왕 때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그는 국원소경(충주)에서 여러 제자를 길러 가야의 음악을 신라에 전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① 대가야의 건국 신화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령현 건치연혁(建置沿革)조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대가야의 시조인 이진아시왕의 별칭은 뇌질주일(惱室朱日)이다. 시조가 수로왕이며 구지봉 전설이 전해지는 것은 금관가야이다. ③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해상 활동에 유리한 입지 조건과 철의 생산 및 교역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대가야는 고령 지방을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맹체를 주도하였다. ④ 금관가야의 국주(國主), 즉 국왕이었던 김구해(金仇亥)는 왕실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했는데, 이에 신라는 본국을 식읍으로 주고, 금관가야의 왕실을 신라의 진골 귀족에 편입시켰다.

1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칙령 제41호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 (㉠)을/를 관할한다.

- 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우산으로 표기하였다.
- ②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고, 당시 일본에서는 ‘송도(松島)’로 기록하였다.
- ③ 일본 정부는 1870년대에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으면서도, 1905년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라는 명목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 ④ 1952년 UN군 사령부와 협의하에 이승만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의 영토로 확인하였고, 당시 일본은 이를 묵인하였다.

19.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은 석도(石島)이다. 당시 울릉도 주민의 다수는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안 출신 어민들이었다. 이들은 지금의 독도를 ‘돌섬’이란 뜻의 사투리인 ‘독섬’이라고 불렀다. ‘독섬’을 뜻을 취해 한자 표기하면 ‘石島’가 되고, 발음을 취해 한자 표기하면 ‘독도(獨島)’가

된다.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는 곧 '독도(獨島)'인 것이다.

④ 1952년 발표된 소위 '평화선(이승만 라인)'에 대한 내용이다.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며,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여기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경계선을 선포하자 가장 강력하게 반대반응을 보인 것이 일본이었지만 정부는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명분을 밝혔다.

① 조선 초기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조(條)에서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하여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였다. ②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1693). 그 후에도 안용복은 자신을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이라 자칭하고 재차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였다(1696). 한편 일본은 19세기 중반까지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 불렀다. ③ 1877년 일본의 태정관 문서에 따르면 울릉도와 그 외 1개 섬인 송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무주지 선점론'에 따라 독도를 편입하였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르면 영토를 편입할 때는 인접국인 대한제국에 조회와 통보, 일본 정부의 관보 공시 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편입 당시 독도가 아닌 프랑스 포경선이 불렀던 '리앙쿠르 섬'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처럼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제법적 불법성을 은폐하면서 필요에 따라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는 자기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최익현 부대는 순창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보낸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자 ... 임금의 군대와 싸울 수는 없다면서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하자 '불효는 불충'이라면서 귀가해버려 결국 서울진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 ① 의병장은 주로 양반 유생이었다.
- ② 천도교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 ③ 관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투항하였다.
- ④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였다.

20.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을사의병 당시 최익현의 의병운동과 정미의병 때 13도 창의군에 대한 내용으로 유생 의병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① 을사의병 당시 유생들의 지도자였던 최익현은 제자 임병찬과 함께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켜 순창에서 세력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의 진위대가 공격해 오자 왜적이 아닌 동족과는 싸울 수 없다고 하면서 전투를 중지하고 체포당하였고 이후 일본군에 의해 쓰시마 섬에 잡혀갔다가 순국하였다.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일어난 정미의병은 전국적 의병 운동을 위하여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고, 유생인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삼는 등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된 조직이었다.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던 중 부친상을 이유로 총대장인

이인영이 귀가하면서 군사장 허위에게 이후의 일을 위임하고 의병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로써 작전은 실패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의병 부대는 본래의 활동 근거지로 돌아가야 했다.

② 의병운동과 천도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최익현의 부대는 관군과 별개로 활동하다가 관군인 진위대와 맞서게 되자 의병 운동을 중지하였고, 군대 해산 이후 결성된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 작전은 여러 한계를 보이며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관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투항하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④ 유생들이 중심이 된 의병 부대는 군주제를 지향하였고, 국권피탈 이후에는 복벽주의를 지향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